

‘뿌리 찾기 문학’과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

—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

범정** · 이해영***

〈차 례〉

1. 들어가기
2.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와 ‘뿌리 찾기 문학’
3. 간도 땅에 뿌리 내리기와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4. 전통의 보존과 혁신을 통한 조선족 공동체의 유지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뿌리 찾기 문학’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인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통해 조선족이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위기와 민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박철성을 대표로 한 조선인들이 생업에 쫓겨 고향을 떠나 간도 땅으로 이주한 당시의 어려운 개척사, 정착사, 그리고 투쟁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소설이 재현했던 것처럼 조선인 이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지 타민족과의 사이에 있는 수많은 마찰과 갈등을 극복하였고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했으며, 혁신과 보존을 통해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즉, 조선족 사회의 문화는 간도로의 이민을 시작으로 백여 년의 융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특유의 새로운 문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홍일의 ‘뿌리 찾기 문학’은 조선족 젊은 세대의 부족한 민족사적 지식에 대한 보완임과 동시에 1990년대 조선족 공동체 해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 제1저자, 중국해양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문학 박사과정, 중국석유대학교(화둥) 외국어대학 부교수

*** 교신저자, 중국해양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교수

체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뿌리 찾기’문학,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 중국조선족, 정체성

1. 들어가기

198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 주류 문단에는 수많은 ‘뿌리 찾기 문학’이 나타나고, 이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도 ‘뿌리 찾기 문학’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창작된 조선족 작가 최홍일의 장편소설 『눈물젖은 두만강』 역시 이러한 ‘뿌리 찾기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 조선족의 문예잡지 『장백산』에 연재된 장편소설 『눈물젖은 두만강』은 1884년부터 1910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박철성을 대표로 한 조선인들이 생업에 쫓겨 고향을 떠나 간도 땅으로 이주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던 중국 조선족 초기의 고난에 찬 개척사, 정착사, 그리고 투쟁사를 기록하였다. 이 소설은 ‘길림(吉林)성 정부 장백산 문예상’을 수상했고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으며, 2015년 ‘중국 소수민족 문화발전 프로젝트 번역·출판 지원 프로젝트¹⁾’의 지원을 받아 중국어판으로도 출간되었다.

『눈물젖은 두만강』은 발표되자마자 이전에 발표되었던 조선족의 이민 소설²⁾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조선족 문단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눈물젖은 두만강』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민사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최병우는 기존 조선족 역사소설에서의 이념 위주의 창작과 대비하여 “조국 해방과 계급해방의 관점에서 정치적 주제에만 집중한 기존의 조선족 역사소설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까지 소설화³⁾”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했다. 이해영 등은 앞선 리근전의 『고

1) 이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중국작가협회가 조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의 각 소수민족 작품(시가, 소설, 산문, 문학평론 등 포함)을 선정하여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소수민족 문학의 중국 내 전파에 일조하고 있다.

2) 조선족의 최초의 이민 소설로는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82년과 1984년에 상, 하로 나누어 출간된 조선족 작가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가 있다.

난의 년대』가 문단과 학계로부터 지나친 이념 위주의 창작으로 도식화의 한계를 면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하고 있는 최홍일이 신사실주의 창작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이념 중심의 창작에서 벗어나려 했고, “탈이념화의 방법으로 역사적 시간과 역사적 현실을 차단”하였다고 지적했다.⁴⁾ 나아가 이를 “민담의 세계와 민속의 세계로의 회귀⁵⁾”라고 보았다. 장춘식은 서사학적 시각에서 『고난의 년대』와 『눈물젖은 두만강』의 주제 경향, 표현 기교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눈물젖은 두만강』은 함경도 사투리를 바탕으로 연변 사투리를 대담하게 구사하여 이민 초기의 조선족들의 세속화된 생활 장면과 조선인들의 도덕의식 수준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⁶⁾. ‘뿌리 찾기 문학’의 시각에서 접근한 경우로는 윤운진과 오상순의 연구가 있다. 윤운진은 최홍일이 중국 주류 문단의 ‘뿌리 찾기 문학’의 영향을 받아 문학을 통해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 평가했다⁷⁾. 오상순은 조선족 문학사의 기술에서 『눈물젖은 두만강』의 “이민사의 재현은 우리 문학의 원초적인 ‘뿌리 찾기’작업이요, 우리 민족이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행정에서의 첫 발자국이다. 이민사 재현의 공백을 메운 것이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이고 그것을 풍부히 한 것이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⁸⁾”이라고 보았다.

소설의 한계에 대해서는 소설 후반부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소설이 성격 파탄을 이루게⁹⁾” 되었고, 동시에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작가는 약간의 추론이

3) 최병우,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연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3, 한중인문학회, 2016, 315쪽.

4) 이해영, 「<눈물젖은 두만강>의 탈이념성」,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82~95쪽. 현천추, 「조선족 작가 최홍일의 문학적 정체성과 『눈물젖은 두만강』의 신사실주의」, 『문예 쟁명』 7, 길림성 문학 예술계 연합회, 2015, 169쪽.

5) 이해영, 위의 논문, 81쪽.

6) 장춘식, 「『고난의 시대』에서 ‘눈물 흘리며 두만강’으로-조선족 이민사 재현 시점 변화 검토」, 『민족문학연구』 3,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1996, 56~57쪽.

7) 윤운진, 「‘뿌리 찾기 문학’의 문화 계발과 『눈물젖은 두만강』」, 『민족문학연구』 3,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2005, 106~108쪽.

8)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385쪽.

9) 이해영, 위의 논문, 95쪽.

부족¹⁰⁾하며,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시점의 이동으로 인해 독자가 온전히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¹¹⁾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민사적 시각에서 『눈물젖은 두만강』의 탈이념성, 세속화된 이민사의 기록 및 이로 인한 기타 이민 소설과의 차이점 등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뿌리 찾기 문학’의 시각에서 접근한 경우는 조선족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가 조선족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정신과 의지 등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홍일은 스스로 『눈물젖은 두만강』의 창작 동기에 대해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중국문단 특히는 중국청년문단의 이슈였던 ‘뿌리 찾기 문학’의 영향으로 볼 것입니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선족 젊은 작가들도 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래원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¹²⁾”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작가 최홍일이 강조했던 『눈물젖은 두만강』에서 찾고자 했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뿌리 찾기 문학’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소략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문화보다는 사회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월경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판룡은 조선족을 ‘중국에 시집간 딸’에 비유하며 시집을 간 딸이 시대 문화에 적응하는 것, 시대 구성원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하며 ‘머느리론’을 주장했다¹³⁾. 그리고 김호웅은 ‘접목의 논리’를 내세웠다. 즉, 조선족의 문화는 한반도에서 가져온 모태문화에서 중국문화와 접목(接木)하여 새롭게 자라난 문화형태¹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접목의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김강일은 ‘융합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이론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조

10) 윤윤진, 앞의 논문, 108쪽.

11) 장춘식, 앞의 논문, 58쪽.

12) 최홍일, 『우리 민족사의 확인과 작가적자세』, 『연변문학』 8, 2004, 13~14쪽.

13) 정판룡, 『중국조선족문화의 성격문제』, 강순화, 『중국조선족문화와여성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267~278쪽.

14) 김호웅, 『근대에 대한 성찰과 우리문학의 새로운 주제』, 『국제학술대회』 제16회, 한중인문학회, 2006, 1~7쪽.

선족을 수소와 산소로 이뤄진 신물질 ‘물’로 보았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물을 산소와 수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은 산소와 수소를 포함하지만, 산소 혹은 수소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은 산소와 수소의 두 가지 원소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이해해야 한다¹⁵⁾.

다시 말해 조선족 사회의 문화는 이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여 년의 융합 과정을 거쳐 형성된 새로운 문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구조는 단순히 한반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더함이나 중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문화정합체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 최홍일은 “자기의 피줄기를 찾아보고 자신을 확인”하고¹⁶⁾, 그리고 “민족작가로서의 역사적 사명감 외에 30년간의 단절에서 비롯한 한국인의 우리 조선족에 대한 몰이해, 그걸 타개하기 위한¹⁷⁾” 동기로 『눈물젖은 두만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소설의 창작과 사회역사배경을 결합하여 『눈물젖은 두만강』에 나타난 ‘뿌리 찾기’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뿌리 찾기 문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소설은 조선족 이주민들의 어떠한 집단적 기억을 통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지, 위의 사회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떠느리론’, ‘집목의 논리’, ‘융합론’으로 해석되었던 중국 이주 이후, 새롭게 형성된 조선족의 정체성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가가 찾고자 했던 ‘뿌리 찾기’의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5) 김강일, 『중국 조선족 사회 지위론』,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 우세와 발전 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 22~25쪽.

16) 최홍일, 앞의 글, 2004, 14쪽.

17) 최홍일,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6쪽.

2.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와 ‘뿌리 찾기 문학’

위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눈물젖은 두만강』이 창작되었던 1990년대 조선족사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에 들어가며 조선족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먼저 중국 국내 환경을 살펴보면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1992년 개혁개방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3단계에 진입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또한 인간 의식 형태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조선족 농민들은 기존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조선족 집거지에서 점차 도시로 이동하게 된, 중국 내에서의 조선족 인구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외환경을 살펴보면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고루 이해하고 있는 문화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한·중 경제무역 교류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국내 및 국제 간 인구 이동의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구 이동은 조선족과 타민족, 그리고 한국인과의 잦은 경제·문화 교류로 이어져 조선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농촌 인구의 대량 이동은 민족 전통 집거지를 축소시켰고, 농촌의 민족 기초 교육을 약화시키며, 결국 조선족 집단 거주지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하였다. 둘째, 조선족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피하며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의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족 인구는 급격히 한국으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게 된 조선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거주, 불법결혼 등을 행하였으며, 이는 한국 내에서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과의 교류도 원만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문제들은 결국 한국인들로부터

터 조선족을 향한 냉대로 이어져 조선족들은 문화적 이질감, 정신적 소외감, 그리고 모국과의 문화적 유대성의 단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내외 국면으로 단순성의 논리와 강력한 이념에 의해 지배되던 삶의 질서와 절대적인 이데올로기가 삶의 구체적인 일상 속으로 흩어지고 흔적 없이 숨어” 들었고 “모든 단순·명확하던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불명확해졌으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 판단이 불가능해지게¹⁸⁾ 되었다. 조선족의 역사에서 1945년 이전까지의 생존을 위한 인구 이동, 즉 조선족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에 정착함으로써 모국에서 멀어진 것을 조선족의 제1차 ‘뿌리 잃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서게 된 조선족의 인구 이동, 즉 생활환경의 변화를 피하며 대도시나 한국으로 진출하고 결국 이것이 다원문화의 충격과 민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조선족의 제2차 ‘뿌리 잃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뿌리 잃기’가 한반도 고유의 조선민족의 정체성에서 중국 조선족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이되는 것이라면 제2차 ‘뿌리 잃기’는 중국 이주 이후 형성된 조선족 특유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민족교육 위기, 민족경제 위기, 민족인구 위기¹⁹⁾ 등은 결국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와 정체성 위기로 이어졌다. 이 위기를 두고 ‘조선족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느냐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²⁰⁾.

일반적으로 민족 역사의 대전환 시기나 토종 문화와 외래 문화가 크게 충돌하는 시기는 개체나 민족의 뿌리 찾기 의식을 불러일으킨다²¹⁾. 따라서 1980년대 중국 주류 문단에 ‘뿌리 찾기’ 문학 붐이 일면서 중국 조선족 작가들도 스스로 민족 정체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중국 조선족 문단에도 민족적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역사소설 집필 붐이 일어났다. 장

18) 이해영, 앞의 논문, 84쪽.

19) 오상순, 『이중 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현대 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38쪽.

20) 김강일, 『조선족 사회 위축의 위기와 그 진로의 선택』, 『연변대학교학보(사회과학관)』 6, 연변대학교, 2011, 25쪽.

21) 주인려(周引莉), 『뿌리 찾기 문학의 발전과 영향』,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4, 2쪽.

편소설로는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김운룡의 『새벽의 메아리』 등 수 많은 작품들이 출판되었다. 이에 대해 정관룡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몇 년 사이,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도 민족문학에서 역사제재, 역사배경의 문학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 이것이 마치 어디에서 낳아졌는지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 근 백년 동안 우리는 계급투쟁만 하다 보니 자기의 민족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역사소설 혹은 역사제재소설, 역사배경소설의 흥기는 바로 중국조선족이 자기를 인식하고 싶어하는 발전단계에 이르렀다는 표지로 되면 우리 민족의 성숙의 표지로 된다.²²⁾”

조성일도 “‘문화대혁명’을 겪은 후 민족의 자아각성의 표현이며 민족의식 고양의 표현²³⁾”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문학을 통한 민족의 뿌리 찾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뿌리 찾기 문학’은 문화대혁명 역사의 관성 때문에 강렬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사 재현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설의 서사는 역시 이념 중심의 단일성, 극단적인 계급 대립 시각, 도식적인 한계가 있어 비판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고난의 연대』는 “우리가 배운 역사교과서와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²⁴⁾.

1990년대에 이르러 조선족 작가들은 역사소설 창작을 지속하며 조선족 ‘뿌리 찾기’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80년대에 비해 조선족 작가 개인의 주체 의식이 점점 뚜렷해지고, 동시에 민족 주체 의식 표현은 더욱 다원화되고 개성화되었다. 『고난의 년대』 등 1980년대 역사 소설이 안고 있던 계급 ‘관념의 과잉과 도식화²⁵⁾’ 창작에 비해, 90년대의 “작가들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의 세속적인 생활과 그들의 운명을 담담하고 안정된 어조로 펼쳐 보일 뿐 계몽가적인 역할이나 자기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강렬한 감정색채나 평가를 피한다.²⁶⁾” 세속소설을 통해 조선족 작가들은 민족 역사를 서술하고 민족의

22) 정관룡,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8쪽.

23) 조성일,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8쪽.

24) 김동환, 「『고난의 연대』에 대한 본체론적 사고」, 『문학과 예술』 5, 1988, 31쪽.

25) 이해영, 앞의 논문, 81쪽.

정체성 확인 내지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했다. 1990년대 세속화 이념으로 창작한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은 바로 이런 ‘뿌리 찾기 문학’의 대표작 중의 하나다.

중국 조선족 작가 최홍일은 1954년에 료녕(遼寧)성 신빈(新賓)에서 태어나 1970년에 하향지식청년으로 연변 화룡(和龍)현으로 내려가 농민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재교육을 받았고²⁷⁾, 1980년 문화대혁명 이후 제1차 대학생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실제 이민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조선족 이민 3세대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조선족 자체의 민족교육과 이질적인 한족 문화 교육을 함께 받았으며 1980년대 중국문단의 붐이었던 ‘뿌리 찾기 문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문화적 상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족의 젊은 일대들은 중국 ‘문화대혁명’이란 엄청난 사건의 후유증으로 역사에 대한 지식 특히 자기 민족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공백상태²⁸⁾”라고 통탄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이민의 역사는 이민의 후세가 써야 한다²⁹⁾”는 사명감으로 『눈물젖은 두만강』을 창작하게 되었다.

최홍일은 월경민족으로서 민족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시각에서, 1884년부터 1910년대까지의 이민실변(移民實邊)³⁰⁾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치발역복(剃發易服)’, 벼농사 짓기, 논마지기 쟁탈사건 및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송

26)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242~243쪽.

27) 1956년 10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956년부터 1967년까지의 전국농업발전요강(개정 초안) 문서에서 ‘지식청년 산상하향(知識青年上山下鄉)’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실제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낸 것은 ‘문화대혁명’ 후반기였다. 1968년 12월 모택동(毛澤東)은 “지식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빈하중농(貧下中農)의 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다. 즉, 청년 지식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노동자·농민과 노동을 함께 하고, 이것을 통하여 사상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8년에 산상하향(上山下鄉)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며 재학 중이던 중·고교생 전원이 농촌으로 떠났다. 1979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청년 지식인들 상당수가 도시로 귀환했다. 최홍일이 문화대혁명이 끝나기도 전에 도시로 돌아와 연변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대다수 청년 지식인들보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28) 최홍일, 앞의 글, 2004, 14쪽.

29)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 서문, 민족출판사, 1999, 1쪽.

30) 박창욱은 조선족의 중국 이입의 역사적 단계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1620~1670년 청나라 초기에 이주한 조선인, 1770~1980년대 모금잠경(冒禁潛耕) 시기, 1885~1910년대 이민실변(移民實邊) 시기, 1910~1931년 ‘9·18사변’의 자유이민 시기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박창욱, 『중국조선족역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5, 40~69쪽)

사분쟁 등 일련의 중요한 역사 사건들을 창작 내용으로, “역사속의 민중, 민중의 인생고와 모대감을 쓰고 서민을 역사의 주체로 그리자고 마음³¹⁾” 먹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을 역사의 시야에 끌어들여, 민중의 개인사 즉, 민초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현실적 시각에서 조선족의 이주사를 입체적으로 서사화하였다. 그는 조선족의 이주 역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조선족과 모국인 한반도 선조의 유대성, 이민지에서의 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서 조선족의 정체성과 문화가 어떻게 변이했는지를 탐구했다.

3. 간도 땅에 뿌리 내리기와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작가 최홍일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조선족 이민 역사의 첫 단계로 돌아가 고향과 새로운 이민지인 간도에 대한 조선이주민들의 모순적인 감정부터 되짚어 보았다. 소설은 첫 시작부터 물살이 급한 두만강을 마주하고 강 건너 고향을 바라보는 주인공 박칠성의 아들 팔룡이의 착잡한 심정을 다루었다.

“(팔룡이) 열세살에 고향을 뗏다. 고향이라지만 뭐 그리 달착지근하거나 애짹짹한 추억 같은게 조금치도 없었다. 너무나도 살풍경이던 고향이라서 그런지 모른다. 풀뿌리와 나무껍질, 굵어죽은 할아버지, 잡혀간 누이 … 기억에 남아 있는것이란 죄다 참단한 정경이다. 그래도 머리가 남아 가끔 꿈속에 떠오르곤 하는 것은 강에 물장구 치며 통발 틀어 고기잡던 발가숭이시절이었다. 그런데 참 별스러웠다. 한해에 두 번, 그러니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씩은 꼭 밟게 되는데도 번마다 왜 그런지 가슴이 몽클해나며 후덥지근해나는지 모를 일이었다.³²⁾”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향에 대해 “그리 달착지근하거나 애

31) 최홍일, 앞의 글, 1995, 6쪽.

32)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상)』, 연변인민출판사, 2012, 7쪽.

짹짹한 추억 같은 게 조금치도 없었”지만, 번마다 고향의 땅을 밟게 되었을 때는 꼭 “기슴이 뭉클해나며 후답지근”했다. 최홍일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조선족의 선조들이 고향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묘사했다. 팔룡 이처럼 간도로 이주한 조선 이주민들에게 고향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또한 새로운 이주지인 간도는 조선 이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은 그 옛날 조선 이주민들의 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 최홍일과 같은 조선족 이민 후세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최홍일은 바로 이런 경계인으로서의 고민에 기반하여 조선족의 이민서사 집필을 시작했고, 민족 역사를 통해 조선족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우선 최홍일은 조선족 이민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 조선족 이민의 원인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는 당시 조선 이민자들이 이민 전 처한 사회 환경에 대해 1884년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은 “수재, 한재가 해를 거듭하여 덮치여왔다”, “조정은 당쟁에만 혈안이 되어 날뻐뿐 언제 백성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³³⁾고 묘사했다. 소설의 주인공 박철성 가족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생활난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박철성의 딸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양반집 선산의 소나무 껍질을 잘못 벗겨 배를 채웠기 때문에 중년으로 잡혀갔다. 철성의 아버지는 역병을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귀한 쌀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낙루하며 사흘 동안 단식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박철성, 이웃집 득보, 득보의 아버지인 갑술령감의 세 가정은 삶의 희망을 찾아 함께 “복지(福地)라고, 부지런한 농군은 잘 살 수 있다고 소문이 짜한 만주땅을 바라고 강을 건넜다³⁴⁾”

소설 속에서 생활난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천민층만이 아니며, 중인 계층인 훈장 최림 역시 꺾박에 못이겨 이민을 가게 되었다. 최림은 역관 출신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으나, 연로한 군수가 열여덟 살 난 딸 삼월을 강제로 후처로 맞으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밤새 강을 건너 도망쳤다.

33) 최홍일, 위의 책, 3쪽.

34) 최홍일, 위의 책, 12쪽.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조선 이주민들 대부분이 중국 즉, 청나라 정부나 문화에 대한 동경 혹은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간도에 이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선 이주민들은 모국을 떠나 간도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초기, 여전히 모국에 대한 강한 향수와 모국 문화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현지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질적인 느낌과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타민족 문화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 이주민들이 초기에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조선인 이민들은 간도를 ‘복지’로 여기고, 간도에 정착한 뒤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농민의 천국이라고 생각했으나, 간도에서의 조선 이주민의 생존환경과 생활형편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두만강을 건넌 후 당장 경작할 씨앗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인공 박칠성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종자곡 다섯 되와 보리 두 말을 얻기 위해 부득불 큰아들 팔룡이를 장재촌의 한족 지주 동지주한테 5년 머슴으로 보냈다. 같이 이민 온 윤득보도 량곡과 종자곡을 해결하기 위해 홀아비로 있는 청인에게 딸을 팔 수밖에 없었다. 독서밖에 할 줄 모르고 생활력이 거의 없는 최훈장은 월강 이후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동지주의 청지기이자 조선에서 살 때 옛 이웃이었던 용달에게 의지하였다. 최훈장은 용달이가 동지주에게 “두손을 싹싹 빌며 갖은 사정을 다 해서야” 얻은 임시 집에서 살고, “뭇나무도 용달이와 팔룡이가 째짤이 틈을 타서 마른 강대 나무를 한지게씩 저다주군 하는 형편이었다.” 추석밤에 최훈장이 마신 막걸리 두 그릇도 용달이 온 동네를 누비며 겨우 얻어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간도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의 조선족 선조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당시 간도 땅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 1세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신산한 것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종자곡이나 양곡을 얻기 위해 아들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박칠성이나 윤득보의 눈물겨운 사연은 생존 앞에서는 혈육의 정이나 윤리와 도덕도 무력한 것임을 보여준다.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 즉, 생존이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나중에 청정부의 ‘치발역복’ 정책의 강요 앞에서 결코 생명줄인 땅만은 버릴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미리 보여주며 결국 현실적 차원에서 타협책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의 선택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박철성과 같은 조선 이주민의 수가 많아지고 러시아의 끊임없는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1885년 청나라는 조선전문구역(朝鮮專墾區域)을 지정하고 조선 이주민의 정착을 허락함으로써³⁵⁾ 박철성같은 조선 이주민이 강을 건너 농사를 짓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1890년 청나라는 조선의 이주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발령’을 공포했다. 법령에 따르면 ‘치발역복’을 해야 청나라로 귀화할 수 있고, 비로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정책은 곧바로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현지 문화에 이질감을 갖고 있던 조선 이주민들의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저항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같은 내용은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사처에서 항거의 물결이 일었다. 쟁기를 메고 달려드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로씨야의 연해주로, 조선본토로 짐을 싸들고 되돌아가는 간민이 많았다.”³⁶⁾

박철성을 비롯한 용드레마을 주민들도 딜레마에 빠졌다. 침착하고 노련한 박철성은 이런 어려운 선택 앞에서 분노하며 외쳤다.

35) 조선 이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러시아의 침탈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조선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변방 지역을 지키는 것이 청나라의 급선무가 되었다. 1881년 길린(吉林) 장군 오대징(吳大澂)이 광서제(光緒帝)에게 상서(上書)하여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훈춘(琿春)에 부도통(副都統) 관아(門衙)를 설치하고, 산하에 남강초간국(南崗招墾局)을 두어 조선 이주민을 받게 시작하였다. 1882년 청나라는 조선조와 공동으로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공포하고, 이듬해 『길림과 조선상민 무역지방장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을 공포하여 중국과 조선조의 통상장소와 나루터를 정하고, 양국 변경 주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당일 변경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85년 청나라가 두만강 이북의 길이 700여 리, 넓이 40~50여 리 일대를 조선 이주민들이 개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조선전문구역(朝鮮專墾區域)을 지정했다.

36) 최홍일, 앞의 책, 250쪽.

“대비 간다구?! 아무리 어찌구 어찌구 해두 대비 조선따오루 돌아간다는게 어디 될 말이요? 죽을 고생 다 하문서리 일귀놓은 땅을 데지구 어디메루? 나는 못가 쟤다이, 못가쟤단 말이요.’

격해진 칠성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마냥 찌렁찌렁 뜨락에 울리었고 마을장정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 들었다. 그들은 이 마을 개척자로 허허벌판에 첫 썰매를 박았던 칠성의 마을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았다. 이 고장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절절함은 사실이었다.³⁷⁾”

이러한 칠성이의 절규는 다른 조선인 이민소설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만주’에 이주해 살다가 광복 바로 몇 개월을 앞두고 한반도로 귀환한 한국작가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는 강렬한 민족주의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념으로 되어 소설 전체를 지배³⁸⁾”하며 그래서 『북간도』에서 조선인 이주민인 이한복은 “간도는 우리땅”이라고 선언했고, 청인지주 동복산이 손자 창윤에게 변발을 시키고 청인의 옷을 입혀 보내자 분을 못이겨 쓰러지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한복에게는 “민족의 얼³⁹⁾”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우위에 놓였던 것이다. 계급이념을 주선으로 한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에서는 “변발을 반대하는 각 민족 인민의 거세찬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다⁴⁰⁾”는 묘사를 통해 ‘치발역복’을 한족, 조선족 인민에 대한 민주족 지배계급의 억압이라는 논리를 펴으로써 민족대립을 무화시키고 있다⁴¹⁾. 이들과는 달리 최홍일은 박철성을 분노에서 이성으로 회복시켰다. 결국 박철성은 용드레마를 촌민들과 절충방법을 택했다.

37) 최홍일, 앞의 책, 238쪽.

38)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서사에 나타난 민족 의식 - 타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31쪽.

39) 안수길, 『학원한국문학전집16 - 북간도/벼』, 학원출판공사, 1990, 38쪽.

40) 이근전, 『고난의 연대(상)』, 연변인민출판사, 1982, 163쪽.

41) 이해영, 『일제시기 간도(間島) 이주와 그 형상화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리근전의 『고난의 연대』』,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8쪽.

“온 마을 30여호의 토지를 전부 한족 충공보와 조선인 강서방 두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니 관청에서 발급한 땅문서에는 두사람이 땅임자였다. 그 토지 문서 뒷면에 각 집에 실제 토지임자와 면적을 적어 붙이었다. 그 종이장이 바로 ‘마상초’였다.”⁴²⁾

남강초간국(南崗招墾局) 국장인 동림은 “삼(山參) 네뿌리, 룽용(鹿茸) 두개”⁴³⁾을 받은 뒤, 더 이상 이 일에 참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발령’은 조선 이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더욱이 청나라의 지방관은 법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점차 느슨해져 “거류자인 한민(居留此地者韓民)은 구속의관(舊俗衣冠), 형동화의(形同化外)⁴⁴⁾”가 되었다.

이처럼 ‘치발역복’ 난제는 조선 이주민들의 ‘마상초’로 풀렸다. 최홍일은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마상초’는 조선간민들이 청관청의 치발역복책에 대처하기 위해 찾아낸 교묘한 절충방법이었다.”⁴⁵⁾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작가 최홍일이 생존을 조선인 이주민의 최우선 문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작가 최홍일이 인정하는 최선의 해법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비록 생존을 위해 ‘치발역복’의 강요 앞에서 한발 물러서서 절충적인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결국 ‘변발’도 ‘치복’도 하지 않았고 땅도 그대로 지켜냄으로써 민족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 조선인 이민 1세대의 강인한 정신과 적응능력을 보여줬다.

미국의 학자 잉글은 민족들은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소외감— 즉, 이 나라에서 자신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정부를 불신하며 가치관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낄 때 민족 정체성 의식이 강화된다고 지적한다⁴⁶⁾.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경제·문화의 변두리에 놓여 있던 조선

42) 최홍일, 앞의 책, 251쪽.

43) 최홍일, 위의 책, 248쪽.

44) 고영일, 『중국조선족 역사 연구 참고 자료집(제1집 - 명나라~신해혁명)』, 연변대학출판사, 1989, 239쪽.

45) 최홍일, 위의 책, 251쪽.

이주민들이지만, 청나라의 ‘치발역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저항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일깨워지고 민족 정체성 또한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변화된 새로운 환경 앞에서 조선 이주민들은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치발역복’ 정책에 대한 조선인 이주민들의 지혜로운 대응과 절충적 해결안은 조선 이주민들이 간도땅을 밟은 이후 현지문화와 부딪치고 현지성을 인식하면서 이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느끼고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이주지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첫 번째 관문이었다. 이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한반도에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이 시작된 계기로 볼 수 있다.

조선 이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청나라 말고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화적떼도 있었다. 단오절날, 낮에는 용드레마을 사람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냈으나, 밤에는 화적떼가 마을을 습격했다. 그 화적떼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이수라장이 되었다. 화적들은 닥치는 대로 농가에 뛰어들어 낱알을 털어가고 소를 끌어갔는데 거의 한집 건너씩 봉변을 당하였다. 그리고 여자 다섯 명도 끌고 가면서 사흘 내로 은전 200냥을 가져와 인질을 찾아가라는 말도 남겼다. 이것이 간도 조선인 이주민들이 직면한 열악한 생존 상황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화적떼의 횡포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다. 칠성이도 반항하는 아들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던지고 그를 고방으로 밀쳐 넣었다. 하지만 팔룡이가 정성껏 기른 황소는 분노를 터치었고 그 바람에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황소의 죽음은 그대로 조선 이주민들의 처참한 생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조선인 이민 1세대가 직면한 생존환경은 조선족 초기 이민사의 일부이자 민족의 공통된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간도에는 박철성과 같은 부지런하고 농사일에 여념이 없는 조선인 농민들

46) 하금서(賀金瑞), 연계영(燕繼榮), 「민족 정체성부터 국가 정체성까지」, 『중앙민족대학 학보(철학사 회과학판)』 3, 중앙민족대학, 2008, 6쪽.

뿐만 아니라 반복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계를 도모하는 조선인 이주자들도 있었다. 반복은 일년 내내 집 밖을 떠돌아다니다가 추석과 청명절에나 돌아와 어머니 묘에 제를 올렸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반복은 안정된 생활과 풍족한 재부를 얻지 못했다. 1899년 천보산은광(天宝山银矿)은 부패한 경영관리로 4개월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길림장군 장순(长顺)은 감옥까지 사설(私設)해 가족 채찍으로 노동자들을 내리쳤고, 노동자들에게 안전시설이 없는 지하에서 하루 14시간씩 강제노역시켰다. 광산에서 일하던 반복 등 사람들은 참다못해 천보산은광대폭동을 일으켰다. 소설에서 반복은 우연히 팔룡을 만나 그 대폭동 장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씨와 반복이는 광부들을 로군묘(老君庙)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나서 두패로 갈리어 한패는 반복이 거느리고 광산으로 돌입하였다. 갱을 파괴하고 도가니와 설비를 까부시였다. 서양식용광로도 여지없이 파손되였다. …… 박씨가 거느리는 다른 한패는 량한을 두드려패고 량한의 저택과 정광제의 저택을 불살라버리였다.⁴⁷⁾”

반복은 말을 마치며 감탄했다. “그땐 통쾌했지!⁴⁸⁾” 반항의 성취감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반복의 마음을 잠시나마 풀었지만 그의 생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생활을 위해 그는 끊임없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해야 했으며, 청나라의 전통의복도 입게 되었다. 반복은 끝없는 떠돌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이는 조선인 이주민 1세대 중 노동자들의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서술하다시피 역사적으로 천보산은광의 광산 노동자 중 조선인 노동자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들은 열악한 광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천보산은광 개발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은광 관리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47)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230쪽.

48) 최홍일, 위의 책, 229쪽.

한족 등 다른 민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격렬하게 저항했다. 천보산은광대폭동은 초기 조선 이민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조선인 이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함께 억압에 저항했던 이정표이기도 했다. 최홍일은 농민 중심의 조선인 초기 이민사에 천보산은광대폭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개입시킴으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낙천적이고 적극적인이며 두려움 없이 강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 이주민의 삶의 고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07년 8월에 일본은 ‘간도귀속미확정론’을 빌미로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次郎) 등을 보내 용드레마을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도사장(都社長)〉제’를 기획·시행하면서 ‘민족 분열’, ‘분이지지(分而治之, 나누어 다스리다)’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써서 연변 침탈의 돌파구로 삼았다. 이때 간도의 조선인 이주민은 10만여 명으로 현지 인구의 5분의 4를⁴⁹⁾ 차지했다. 간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 이주민들이 간도에 대한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해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혹은 중립을 지키느냐의 여부는 간도에서의 일본의 세력 확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것은 간도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조선인 이주민들이 만약 일본을 지지한다면 일본의 세력 침투는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놈들을 증오하는 심정은 누구나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생각과 실법은 달랐다. 대략 세가지로 나뉘여지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왜놈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주장과 그들이 백성이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엇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두 견해로 갈라지고 중간의 대부분 사람들은 두고 보자는 생각들이었다. 청국과 일본이 싸울듯한데 일본놈들이 쫓겨나면 본래의 모양으로

49) “1910년까지 연변 인구는 143,000명이며, 이 중 조선 개간민은 109,500명으로 전체 인구 비율의 약 76.6%를 차지한다.”(牛丸岡亮, 『최근 간도 사건』, 『중국조선족역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5, 102쪽)

“오늘날 연변 내 한민(韓民)은 5만여 호나 되는데, 화민(華民)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今日延吉境內韓民, 至有五萬余戶, 華民較不及四分之一—오록정(吳祿貞).” 『연길청 번무보고 제4장』, 『중국조선족 역사 연구 참고 자료집(제1집 - 명나라~신해혁명)』, 연변대학출판사, 1989, 239쪽.

되는 것이고 일본놈들이 이기여 통치를 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었다.50)”

당시 용드레마을 조선의 이주민 구성은 복잡했다. 개척패들인 팔룡이, 강서방, 윤삼이와 동학패의 오씨를 비롯한 세 사내, 그리고 최씨와 돌쇠 애비 등 기독교패들이 있었다. 일본의 중국 침탈에 대한 용드레마을 주민들의 태도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때에 와서는 이미 아무도 모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는 모국인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면서 돌아가더라도 일본의 세력 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깊이 정 들었고 이곳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며 이곳에 남아 그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싹텃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인 농민과 한족 농민 간의 이전의 토지 갈등을 빌미로 다시 분쟁을 일으키려고 이간책을 꾸미면서 조선간민 두 명을 부추겨 일본 파출소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일본인들이 “앞으로 청관청이나 청인들에게서 피해를 받은 일이 있으면 본 파출소에 신고해주시시오. 그럼 본 파출소에서는 드팀없이 조선사람의 리익을 수호해나설것입니다.51)”라고 구술될 때, 마을의 지식인이자 지도자 격인 장석준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이 일은 청국관청을 통해 해결해야지 간도파출소의 재판을 받아선 안 됩니다52)”고 간곡하게 타이른다. 애국 지사인 그는 일본이 조선 이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간도 분쟁을 일으키고, 중국의 내정 간섭을 통해 간도를 점령하려는 음험한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때문에 단순한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일본의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그들이 일본의 세력 침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50) 최홍일, 앞의 책, 459~460쪽.

51) 최홍일, 위의 책, 489쪽.

52) 최홍일, 위의 책, 492쪽.

“며칠전에 연집강에서 조선인유지인사들의 연의회(联谊會)가 무어졌습니다. …… 그 모임에서는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반대하고 …… 조선사람들은 청국관청의 관할을 받지 일본사람들의 보호는 받지 않겠다고 청원하기로 하였습니다.⁵³⁾”

동학패의 오씨가 일본인의 꼬임에 넘어가 “청국땅을 먹자하든 어찌든 우리 조선사람덜까 무슨 상관이 있습둥?⁵⁴⁾”고 말하자 장석준은 호되게 꾸짖었다.

“청국관청에서 조선인들을 박해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구 왜놈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 청국관청과 협력하여 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⁵⁵⁾”

이 제안은 곧 용드레마를 사람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소설에 등장한 장석준과 같은 애국지식인들의 노력으로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 이주민 대부분은 일본의 침략적인 야심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향후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간도는 한국인의 독립운동기지로 활용되었다.

국가 정체성은 실질적으로는 한 민족이 자신의 국민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민족적 신분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며,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는 주체의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속을 확인해야만 국가에 관심을 갖고 국가가 침해될 때 스스로 나설 것이다⁵⁶⁾. 물론 이민 초기 조선인 이주민들이 청나라와 함께 일본의 간도 침략 음모에 저항하는 길을 택한 것은 아직 청국인 즉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반일, 즉 스스로 자신들을 구하는 자구(自救)의 일환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중국인과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공동의 적(敵)이었다. 모국인 조선에 대한 강제 침탈 때문에 조선인 이주민들은 일본을 적으로 인식하였고,

53) 최홍일, 앞의 책, 463쪽.

54) 최홍일, 위의 책, 462쪽.

55) 최홍일, 위의 책, 463쪽.

56) 하금서(賀金瑞), 연계영(燕繼榮), 앞의 논문, 7쪽.

외적에 맞서 싸운 이 역사적 기억은 조선인 이주민들과 현지 중국인들 간의 상호 융합을 촉진시켰으며, 이후 중국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확립하는 정서적 바탕의 하나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조선 이주민들이 모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민을 간 이주사는 중국 조선족 특유의 역사의 출발점이며, 중국 조선족이 모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이주지인 간도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 조선인 이주민들은 온갖 시련과 투쟁을 겪었다. 이들의 삶의 체험은 조선인 초기 이민자들만의 것이고,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게 된 중국 조선족 형성 초기의 조선인 이민자들이 피와 땀과 희생을 대가로 남긴 공동된 역사적 민족적 기억이다. 이 기억은 모국과 이민국과는 다른 중국 조선족 특유의 집단기억이다. 이때로부터 지역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서 조선인 이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타민족과 교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중국 조선족 특유의 집단기억을 점차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중국 조선족 특유의 집단기억은 정보조절과 규범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집단을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과 자기완성 능력을 갖춘 구조적인 공동체로 만들며⁵⁷⁾, 새로운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4. 전통의 보존과 혁신을 통한 조선족 공동체의 유지

1990년대의 중국 ‘뿌리 찾기 문학’ 작가들은 주로 “민족의 우수한 전통, 향토 또는 세대 풍속적인 것,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인물 또는 그런 성격,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과 순박한 인정세계⁵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민족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뿌리 찾기 문학’의 작가가 민족 전통의 뿌리에서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는 현대 의식으로 민족 전통에 대해 새

57) 염국강(閔國疆), 「사회적 기억, 민족적 신분 및 국가 정체성」, 『중앙사회주의학원학보』 6, 중앙사회주의학원, 2019, 98쪽.

58) 윤운진, 「‘뿌리 찾기’와 ‘눈문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 5쪽.

로이 관조하고,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 민족의 정신사(精神史)를 민족 역사 문화 발전의 발원지로 삼아 더욱 깊고 진실한 문화 저력을 탐구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⁵⁹⁾.

‘뿌리 찾기 문학’으로서의 『눈물젖은 두만강』은 강렬한 현실적 대응력과 지향성을 구현했다. 최홍일은 우수한 전통을 보존하고, 낙후된 전통을 혁신함으로써 1990년대 조선족의 ‘뿌리 잃기’로 인한 정체성의 갈등과 민족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홍일은 민족문화를 통해 생명의 근원을 재발견하고 강인한 정신력의 근원인 민족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의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투영함으로써 민족의 뿌리를 형상화시켰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홍일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정신에 대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고, 민족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혁적 사고를 실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1990년대 조선족의 ‘뿌리 잃기’로 인한 고통과 정체성의 곤혹에 대처하고 있다.

먼저 최홍일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의 갈등 묘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전통의 보존과 혁신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었다. 생존 제일의 논리에 기반하여 창작된 『눈물젖은 두만강』은 조선 이주민들이 생존의 난관에 직면하여 나타내는 변화와 그들의 선택, 그리고 변화나 선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여러 곳에서 그려냈다. 박철성 부자 3대가 삶의 가치관을 달리하며 충돌하는 두 장면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 충돌 장면은 주인공 박철성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졌다. 한반도에 대기근이 발생하자 박철성은 살기 위해 강을 건너가 농사를 지으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 “망할 놈자식. 선산을 버리구 어디루 간단말이나? 죄가 돈다, 죄가 돌아!”⁶⁰⁾ 칠성은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여러날의 단식 끝에 돌아

59) 단진조(丹珍抄), 『Alai의 작품 문화심리 투시』, 『민족문화연구』,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화연구소, 2003, 39쪽.

60)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상)』, 연변인민출판사, 2012, 44쪽.

가신 뒤에야 짐을 싸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갔다. 떠날 때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소가 으르렁거리듯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와 허탈함을 호소하며 용서와 이해를 빌었다. 두 번째 충돌 장면은 몇 년 후, 칠성의 아들 팔룡이 가족을 데리고 여러 해 동안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용드레마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다. 팔룡이는 9년 동안 밖에서 떠돌아다녔으며 광부로 일했고, 여인숙을 차리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도탑고 정다운” 용드레마일로 돌아왔다. 견문을 넓힌 팔룡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버지에게 포목 장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조선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 관념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장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박칠성이 팔룡이를 질책했다.

“정신때기 있냐? 자고루 행상은 천한놈덜이 하는 업이다. 백정 다음에 행상이라 하지 않더냐? 울 가문은 조상대대루 착실히 농사만 지으문서 살아온 가문이다. 농사군이 땅을 버리는거는 근본을 버리는게대!61)”

박칠성은 장사꾼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조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룡이를 나무랐지만 팔룡이는 이 일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팔룡이가 보기에 “생업을 정하는 일이고 일생에 미치고 자식에게 미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었다. 행상을 하든 주막을 치든 아무걸 해도 농사짓기보다 낫다는게 그의 판단이었다62)” 젊은 세대의 새로운 힘이 된 팔룡이는 이렇게 반박했다.

“시방 어느때라구 신분을 따짐둥? 량반 따루 없구 상놈 따루 없는 세월인데. 쳇, 조상! 조상이 물려준게 머입둥? 가난허구 궁기외에 또 무스게 있더구 그램둥?! 그래 계구 배나 품채이쿠 평생 땅과 씨름해야 한단말입둥?!63)”

61)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286쪽.

62) 최홍일, 위의 책, 287쪽.

63) 최홍일, 위의 책, 286쪽.

소설에 나타난 박철성의 아버지, 박철성, 그리고 아들 팔룡이에 이르는 부자 3대의 신·구 관념의 충돌은 의심할 여지없이 봉건시대와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충돌이고, 농경문명과 상업문명의 충돌이며, 또한 한 민족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의 피할 수 없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다. 박철성이 생계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선산을 버리고 떠나 강을 건너 농사를 지은 것은 조선 이주민들이 모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과 같은 모습이 었다. 십여 년 뒤 아들 팔룡이가 생계를 위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농사짓는 땅을 버리고 장사를 시작한 것은 조선 이주민들의 민족적 가치 관념의 또 다른 진보였다. 소설에 이민 초기 간도로 이주한 조선족 이민 1세대들은 끊임없는 전통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했다. 주인정신으로 이 황무지를 건설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혁신적이고 자립적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작가 최홍일이 민족 이민사에서 찾아낸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통적 민족정신의 뿌리이고, 1990년대 조선족이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할 때 필요로 했던 민족정신과 민족의식이며, 박철성 부자 3대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민족가치관이다.

소설에는 강을 건넌 뒤 새로운 삶의 환경, 새로운 유혹에 부딪혀 박철성 부자와는 다른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회주의자인 용달이다. 자신의 ‘부자꿈’에 집착하던 용달은 한족 지주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눈치가 빨라 주인의 눈에 들어 청지기로 되었으며 민족 전통 복장을 버리고 청인 복장으로 바꾸었다. 그가 더없이 존경하는 미래의 장인인 최훈장이 그에게 “호복을 입지 말고 마름질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때, 그는 “훈장님은 너무 고정하십니다.⁶⁴⁾”고 최훈장의 뜻을 거슬렀다. 그는 애인의 애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재물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했다. 청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것에 대한 같은 머슴 출신 친구 팔룡이의 멸시에 용달은 “사람 사는게 너처럼 직하기만 변통이 없으면 안

64) 최홍일, 앞의 책, 255쪽.

돼. 허리 굽힐 줄도 알구 길을 끈게만 가려 하지 말구 예들러 갈 줄도 알아야 한다⁶⁵⁾”고 오히려 팔룡이를 나무랐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부자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주 집 과부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신의 부를 확장하기 위해 한족인 오강은 물론 동족과 암투를 벌이며 땅을 차지하기도 했다. 사실 1990년대 역사 대전환기에는 조선족들 속에 용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물질적 삶은 매우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세계는 더욱 황폐해졌고, 성과 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정신은 더욱 피폐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했다. 꿈을 이룬 용달은 만족이나 기쁨 보다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용달은 깊은 밤 홀로 누워 이미 결혼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민족의 차이와 습관의 차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⁶⁶⁾”

“지금 용달이는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녀인을, 가장 소중했던 사랑을 잃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친석살림이면 무엇하고 덩실한 기와집이면 무엇하랴? 단지 사랑했던 녀인만을 잃은 것이 아닌 듯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을 잃은 것 같기도 했다.⁶⁷⁾”

용달은 장인인 동지주처럼 “생은 곱은 상심해보이나 속은 텅 빈 대나무같은 생이었고 강대나무같이 앙양하게 말라 붙은 생⁶⁸⁾”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족 마을을 떠나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용드레마루로 이사했으며 마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민족성을 찾고자 노력했다. 용달은 마을에서 조선식 전통가옥을 짓고 조선인 농민들을 등쳐먹으려는 한족 신흥지주 오강과 박철성이 눈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진해서 관청에 가서 친척인 동림에게 박철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용드레마루의 구

65)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상)』, 연변인민출판사, 2012, 382쪽.

66)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405쪽.

67) 최홍일, 위의 책, 405쪽.

68) 최홍일, 위의 책, 406쪽.

성원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다른 조선 이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용드레마을의 이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박철성 부자 3대와 용달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작가 최홍일이 주장하는 전통적 혁신은 민족전통의 정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윤리적 도덕적 잣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혁신이다. 시대에 발맞추고자하나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 교묘한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민족을 배신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도 못한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작가는 이런 식으로 1990년대의 조선족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올바른 전통적 혁신 방식을 통해 민족 집거지로 되돌아가고, 민족공동체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상호협조를 통해 정신세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함으로써 다원문화의 충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속에서 민족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90년대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홍일의 방식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거시적 탐구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친구 간의 갈등과 충돌, 욕망으로 인한 배신과 양심의 가책과 반성으로 얼룩지고 착종된 민족적 삶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최홍일은 여성과 가족에 초점을 맞춰 민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미시적 ‘뿌리 찾기’를 시도했다. 소설에 나타난 대표적인 여성형상은 삼월이다.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씨까지 착한 조선의 전통여성이었던 삼월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약한 몸으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사랑을 동경하며 용달과 호감을 가지면서도 자중자애(自重自愛)했으며, 다재다능했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작가는 삼월에게 그가 갈구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상상을 부여해 거의 완벽한 여성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고 완벽할수록 파괴는 더 충격적이어서 이토록 완전무결의 여성이었던 삼월은 화적떼에게 끌려가 더럽혀진 몸이 되었고, 화적떼의 행패로 아버지 최훈장의 비명횡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

했지만 다행히 삼월은 장석준에 의해 구조되었다. 또 다시 자살할 작정인 삼월을 설득하기 위해 장석준은 삼월의 낡은 정절(貞節) 관념을 다음의 이야기에 빗대어 비판했다.

“그 목숨이 너무나도 하찮고 가벼운 것이 아니겠소. 론개나 계월항처럼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면 만인이 우러러보며 감복할 일이나 수치심에 못이겨 그런다면 가석한 일이 아닐까?……그 정절이란 것도 달리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거요. 그 정절을 집어던지시오. 녀사서(女四書)에서 받아들인 그 정절관을 집어던질 때가 되었단말이오.”⁶⁹⁾

삼월은 자신의 정절 관념에 대한 장석준의 비판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장석준은 동학 교주인 해월선생과 교조인 수운선생의 “녀자는 나라의 귀한 자원이요”, “녀자는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여⁷⁰⁾ 양반사회가 여자에게만 정절관(貞節觀)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고, 또한 류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과부와 스님이 뒤섞여 지내다가 정절부인정문(貞節夫人旌門)을 하사하는 풍자 이야기로 소위 그 양반사회가 만들어낸 고루하고 진부한 여성의 정절관이 얼마나 가석적인 것인지를 비판했다. 또한 동학의 수령 진봉준이 ‘진주화약(全州和約)’을 받아들이면서 조선 조와 합의한 12조의 7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장석준은 정과 이치를 따지며 마침내 삼월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가 자살을 단념하고 다시 태어나게 했으며, 결국 삼월과 결혼에 이른다. 그 후 남편인 장석준이 구국에 투신하여 자주 집을 떠나게 되어 그녀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집안을 지키기 위한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고독한 자기 처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작가 최홍일은 삼월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 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으로는 진부한 ‘정절관’을 비판하며 여성 해방을 인정했지만, 고상하고 착하며

69)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상)』, 연변인민출판사, 2012, 496쪽.

70) 최홍일, 위의 책, 496~497쪽.

강인하고 어진 삼월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부각시켜 작가 자신이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는 작은 가족공동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작은 가족공동체가 반석처럼 튼튼해야 그 집합으로서의 민족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국에 투신한 남편의 대업과 그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해 할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묵묵히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가족의 정신적 지주가 된 삼월이 지닌 애국심, 인내심과 봉사정신 등 고결한 전통 여성의 인품은 1990년대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의 급격한 몰락, 조선족 청년들의 혼인 위기로 촉발된 민족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대한 최홍일 나름의 해법이였다.

소설의 마지막에는 유학에서 돌아온 장석준이 단발머리에 양복 차림으로 외부의 새로운 문물의 세례를 듬뿍 받은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장석준이 나눠준 양담배를 피우며 바깥 정세를 묻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최홍일은 이를 통해 지극히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의 발전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것에 앞장섬으로써 민족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뿌리 깊은 민족의 전통문화가 외래문화로 인한 변화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전통문화가 사라지거나 혹은 잊혀지게 되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홍일은 분명 1990년대 시장경제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중국 조선족의 이주지였던 간도가 공동화(空洞化)되어가고, 민족집거지가 해체되며 민족의 전통 또한 상실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장석준의 개화된 모습을 통해 작가는 전통적인 조선족 농촌공동체의 변화는 역사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며 이제 우리가 변화를 통해 유지하고 건설해야 할 조선족 공동체는 오늘날 시장경제의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성격을 띤 민족공동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문화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최홍일은 문학을 통해

민족의 전통에서 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하는 뿌리를 찾고자 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유두절, 단오절 등 전통 명절, 팔룡의 혼례, 박칠성이나 갑술령감의 상례 등 전통 풍속, 조선 여자의 물 운반 방식, 집짓기 등 조선민족의 전통 생활방식, 이순신 등 민족 영웅, 광개토대왕 등 역사 이야기에 대해 대폭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소설에 용드레마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근근이 먹고사는 나날을 보내지만 결혼식과 같은 인생사에는 가능한 한 민족적 전통에 따라 준비하고자 노력한다. 팔룡이가 결혼할 때, “그래도 신랑행렬은 제법이라 나무기러기를 든 안부(雁夫)가 앞서고 신랑뒤에 후행이 따랐다.⁷¹⁾”, “신랑과 신부 앞으로 각기 초례상을 차려서 맞붙여놓았는데 약간의 음식이 갖추어지고 량쪽에 술잔이 접시에 받치워 놓이었다. 병풍은 없었지만 청송(青松)을 꽂고 신랑쪽에는 록죽(綠竹)이 없어서 대신 청류(靑柳)를 꽂았다. 청송과 청류 우엔 청실홍실이 늘어졌다.⁷²⁾” 조선 이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민족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점차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보리밥과 옥수수밥을 먹게 되었고, 여유가 있는 이들은 모여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시합 등 다양한 민족전통놀이를 하며 단오를 보냈다. 이를 통해 작가 최홍일은 조선 이민 1세대의 민족 전통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표현했다. 그는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현대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고 또한 잊혀지고 있는 민속, 전통문화에 대한 문자적 보존을 시도하여 조선족의 민족 자긍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민족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나아가 민족의 전통적 문화의 응집력을 통해 조선족의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적 민족공동체의 건설에서 전통 문화의 응집력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눈물젖은 두만강』은 박칠성 부자 3대 간의 세대적 갈등 묘사와 ‘부자의 꿈’을 실현하는 용달의 전·후의 변화를 통해 민족 전통의 보존과 혁신에 대한 거시적 사유 즉, 민족 삶의 태도에 대한 작가의 사색을 보여주

71) 최홍일, 앞의 책, 273쪽.

72) 최홍일, 위의 책, 274쪽.

었다. 또한, 삼월이라는 여성형상을 통해 미시적 사유, 작가가 지향하는 현대적 여성가치관도 드러낼 수 있었다. 장석준의 현대적 복장에 대한 용드레마를 촌민들의 수용을 통해 역사적 흐름에 따라 민족공동체의 현대적 변혁은 불가피하다는 개혁의 사상과 함께 어렵고 팍팍한 이민지의 가난 속에서도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혼례, 상례 등에 대해 최대한 그대로 살려가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전통의 적극적인 보존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 최홍일은 ‘뿌리 찾기 문학’으로서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통해 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해 찬양했으며, 민족의 전통문화와 사고방식 중 현대사회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하고 반성함으로써 긍정적인 민족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여 개인과 민족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민족공동체의 해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 이것은 바로 1990년대 조선족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홍일의 문학적 사유, 즉 민족 문화에서 힘과 정신적 뒷받침을 찾고 민족 정체성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이었다.

5. 결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의 심화와 한·중 수교로 조선족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고, 조선족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족의 농촌집거지에서 점차 중국 연해에 있는 대도시와 한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구 이동에 따른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유실과 가족의 해체 및 그에 따른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은 조선족의 민족 공동체 해체 위기와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을 맞아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민족공동체의 현대적 개혁과 보존이 1990년대 조선족 작가들 앞에 대두된 과제였다. 조선족 작가 최홍일은 ‘뿌리 찾기 문학’을 통해 조선족의 정체성을 탐구하려고 했고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눈물젖은 두만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눈물젖은 두만강』은 조선족의 초기 이민 시기인 ‘이민실변’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간도란 새 이주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박철성 등 조선 이주민들이 한반도를 떠나 간도에 들어가 황무지를 일구며 용드레마을을 건설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가난한 생존 환경 속에서, 이들 조신인 이민들이 청나라의 ‘치발역북’ 정책의 강요, 마을에 침입한 화적떼들에 의한 처참한 피해, 한족과 조선인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일으켰던 천보산은광대폭동, 청정부 권에 서서 일본의 간도 침략 음모에 저항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사화하였다. 최홍일은 민족 이민사의 문학적 재현을 통해 한반도와는 구별되는 조선족의 특유한 정체성의 최초 구축 과정을 축약하여 제시함으로써 1990년대 이래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조선족의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문학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즉, 최초의 민족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동시에 격동에 찬 민족 기억을 찾아 공통의 민족인식을 일깨움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위기에 문학적으로 대처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등 정체성의 곤혹스러움에 대한 문학적 응답을 통해 보다 확고하고 뚜렷한 조선족 특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강렬한 현실적 대응력과 지향성을 구현함으로써 박철성 부자 3대와 용달 등의 모습을 통해 민족 생활 태도에 대한 거시적 사유와 삼월의 여성형상을 통한 미시적 사유를 진행했다. 장석준의 현대적 복장에 대한 용드레마을 촌민들의 수용과 전통 명절, 전통 풍속, 전통 생활 관습, 역사 이야기 등을 묘사함으로써 민족적 전통 보존과 혁신에 대한 작가의 사고를 보여주었다. 작가 최홍일은 『눈물젖은 두만강』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낙후된 전통문화를 비판함으로써 조선족이 현대사회 발전에 맞는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여 민족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홍일, 『눈물젖은 두만강』, 민족출판사, 1999.
 _____, 『눈물젖은 두만강(상)』, 연변인민출판사, 2012.
 _____, 『눈물젖은 두만강(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2. 단행본

- 고영일, 『중국조선족역사연구참고자료집(제1집-명나라~신해혁명)』, 연변대학출판사, 1989.
 김춘선, 『중국조선족사료전집(역사편-회상기 12권)』, 연변인민출판사, 2014.
 박창욱, 『중국조선족역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5.
 손덕충(孫德忠), 『사회기역론』, 호북인민출판사, 2006.
 안수길, 『학원한국문학전집16-북간도/버』, 학원출판공사, 1990.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_____,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이근전, 『고난의 연대(상)』, 연변인민출판사, 1982.
 _____, 『고난의 연대(하)』, 연변인민출판사, 1982.
 이해영, 『중국조선족소설연구』, 역락출판사, 2006.
 이해영·한홍화, 『중국에서의 조선족 문학』, 중국해양대학교출판사, 2014.
 주인려(周引莉), 『뿌리 찾기 문학의 발전과 영향』,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4.

3. 논문

- 김강일, 『중국 조선족 사회 지위론』,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 우세와 발전 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
 _____, 『조선족 사회 위축의 위기와 그 진로의 선택』, 『연변대학교학보(사회과학판)』 6, 연변대학교, 2011.
 김동활, 『《고난의 연대》에 대한 본체론적 사고』, 『문학과 예술』 5, 1988.
 김호웅, 『근대에 대한 성찰과 우리문학의 새로운 주제』, 『국제학술대회』 제16회, 한중인문학회, 2006.
 단진조(丹珍措), 『Alai의 작품 문화심리 투시』, 『민족문학연구』 4,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2003.
 염국강(闫国疆), 『사회적 기억, 민족적 신본 및 국가 정체성』, 『중앙사회주의학원학보』 6, 중앙사회주의학원, 2019.
 오상순, 『이중 정체성의 갈등과 문학적 형상화 - 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윤윤진, 『'뿌리 찾기'와 '눈물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
 _____, 『'뿌리 찾기 문학'의 문화 계발과 '눈물젖은 두만강』, 『민족문학연구』 3,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 연구소, 2005.
 이해영, 『<눈물젖은 두만강>의 탈이념성』,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_____, 『일제시기 간도(間島) 이주와 그 형상화의 두 양상 - 안수길의 『북간도』와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 『한국학연구』 2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_____, 『안수길의 해방전후 "민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 의식 - 타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

- 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 장춘식, 『‘고난의 시대’에서 ‘눈물 흘리며 두만강’으로 - 조선족 이민사 재현 시점변화 검토』, 『민족문학연구』 3,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1996.
- _____, 『조선족 이민 소설과 정체성』, 『민족문학연구』 3, 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2008.
- 정판룡,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 _____, 『중국조선족문화의성격문제』, 강순화, 『중국조선족문화와여성문제』, 한국학술정보, 2005.
- 조성일,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 최병우,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연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3, 한중인문학회, 2016.
- 최홍일,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향하여』, 『문학과 예술』 4, 연변인민출판사, 1995.
- _____, 『우리 민족사의 확인과 작가적자세』, 『연변문학』 8, 2004.
- 하금서(贺金瑞)·연계영(燕继荣), 『민족 정체성부터 국가 정체성까지』, 『중앙민족대학학보 (철학사회과학 판)』 3, 중앙민족대학, 2008.
- 현천추, 『조선족 작가 최홍일의 문화적 정체성과 『눈물젖은 두만강』의 신사실주의』, 『문예 쟁명』 7, 길림성 문학 예술계 연합회, 2015.

“寻根文学”和对朝鲜族共同体解体危机的文学应对

—以崔红一的《泪洒图们江》为中心—

范靛* · 李海英**

本文旨在通过“寻根文学”代表作之一——崔红一的《泪洒图们江》，就朝鲜族如何应对因改革开放和中韩建交引发的民族认同危机和民族共同体解体危机进行探讨。该小说讲述了以朴七星为代表的一批朝鲜人迫于生计，背井离乡，移居间岛的艰难开拓史、定居史以及斗争史。正如小说再现的那样，朝鲜移民为了生存，在迁入新土地定居的过程中，克服了与当地其他民族之间的诸多摩擦和矛盾，并通过对自身传统的不断思考、革新和保存，逐渐形成了新的民族认同。即，朝鲜族社会的文化是以间岛移民为开端，经过百余年的融合过程而形成的特有的新的文化体系。崔红一的“寻根文学”既是对朝鲜族年轻一代民族历史知识匮乏的弥补，同时也是对20世纪90年代朝鲜族共同体解体危机的有效文学应对。

[关键词] “寻根文学”，崔红一，《泪洒图们江》，中国朝鲜族，身份认同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22일

* Ph.D. of Korean Literatur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Ocean University of China; Associate Professor of School of Foreign Languages,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East China)

** Professor of Korean Department, School of Foreign Languages, Ocean University of China